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날것 같은 자유함

고은정/성우



나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교회 출석을 한 이후 줄곧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후 밤과 낮을 가릴 사이 없이 방송과 영화 녹음에 매여 꼼짝할 수 없어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서도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94년에 일어난 사건은 내게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6촌 되는 여동생의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청하는 것을 거절치 못해 도장을 찍은 것이 화근이 되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는 형국이 돼버렸다.

생면 부지의 채권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고 수모를 당하는 사이 해외에서 학위 마무리 작업중에 있는 아이들도 모두 도중하차시켜야 할 입장에 놓였다.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처분해도 집을 건지는 일은 역부족이었다. 난방은 고사하고 커피 한 잔, 주스 한 모금을 아껴서 이자를 충당해야 하는 나날을 보내면서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었다.

여자로서는 적은 수입이 아니었던 시절에도 쌀 한 톨을 허술히 흘린 적이 없고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도 아끼며 살았다. 스타킹 한 짝 내복 한 벌도 몇 년씩 구멍난 것을 꿰매 신고 입을 만큼 근검 절약을 몸에 익히며 살았는데 다 늦게 웬 벌이냐고 불멘 소리가 꾸역꾸역 쏟아졌다. 그래도 기도밖에는 달리 의지할 길이 없었다.

새벽 제단에 머리를 묻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하나님 보좌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바벨탑의 교만을 꺾으시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으셨던 것이다. 번번이 베갯잇을 눈물로 적시는 탄식이 연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택한 생명인데 네 멋대로 너 자신을 정죄하느냐. 내가 너를 이미 생명책에 올렸느니라.”

전혀 뜻밖에 들려온 음성엔 나는 너무 놀라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믿겨지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튿날이라고 해서 갑자기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부채는 여전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하늘을 날 것 같은 자유함을 누렸다.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고 천근같이 무겁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먹구름처럼 어둡던 얼굴에 평온이 깃들었다.

이후 여러 해가 지난 오늘까지도 나는 여전히 채무에 짓눌려 있고 오로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푼돈 수입을 개미같이 긁어모아 은행에 바친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저마다 학위를 따냈고 결혼을 했으며 제각각 자립을 했다. 나는 여전히 바쁘게 할 일이 있고 그 일들은 보수가 있든 없든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한다.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은 길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그럴듯 시간이 걸렸다.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첫별을▶ 목사라 부르지마!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화가 난 목사.  
어느 날 광고시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면 날 목사라 부르지도 마라”고 역정을 냈다. 그날 전도에 나섰던 권사님들이 교회 문밖 길 건너에 모여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목사 왈  
“거기서 뭐하십니까. 들어오시지 않고...”  
그러자 권사님들이 한목소리로.....“미안해요,아저씨”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4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1월 10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목사는...

목수는 나무가 제일이라고 하고  
석수는 돌이 제일이라 하는데  
목사는 사람이 제일이라 하고 싶습니다  
현금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청소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주의 사자를 목하면  
벌받는다고 말해 줄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도둑이라도 좋고  
바람난 여자라도 좋습니다  
주의 말씀에 부디칠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목수는 관을 짜고  
석수는 비석을 다듬겠지만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잠재울 것입니다.

어디서 읽다가 언젠가 후보에 실겠다고 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둔 글입니다. 조금은 낯간지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목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싶습니다. 사람이 제일인 목사지만 목회를 하다보면 사람에게서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게 됩니다. 목사가 그걸 각오하고 소명으로 나섰다면 사모님들은 무엇을 제일로 삼고 사는지요....

지난번 천 전도사님과 임목사님 그리고 저희가정의 교역자 가족특송때 사모님들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뭔지, 하고 많은 남자들중에 목회자를 만나 여성인 듯 아닌듯, 아내인 듯 아닌 듯 조용히 살아가는 사모님들.

그래서 사모님들끼리 만나면 접시깨지는 소리가 컸었나 봅니다.

엄마가 딸에게  
거스름돈이  
더 왔으면 돌려 주어라  
거스름돈은 쉬 잊혀진다  
양심의 기쁨을  
푼돈에게 팔지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마라  
사람들은 너의 입김을  
향기롭게 느끼고 싶어한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인 도 자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 갈 이

\*찬 송 Hymn 21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5(이사야 35) 인 도 자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갈 이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다 갈 이

찬 송 Hymn 490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감 중 건 장 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8:9-14 인 도 자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좋은 믿음은 정직한 기도에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83장'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사카시다 집사 가족, 2절:다같이)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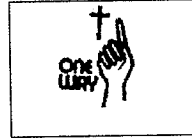
## ◆1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3	김교섭	양경배	권용일, 이지영	장현중, 윤주야	김현수, 민광호
10	김중건	윤형권	양경배, 김동숙	사카시다, 최기향	박기원, 박기창
17	이광희	임혜자	이재영, 김경숙	서동완, 유 순	박병민, 박상옥
24	정덕수	윤한나	윤형권, 신영화	손승일, 윤한나	박일영, 사카시다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1. 교우소식  
<교역자 주소>  
\*임성광 목사. ☎ 489-1233 ☐ 2/109 Shakespeare Rd. Milford  
\*전병주 전도사. ☎ 443-4002 ☐ 10 B felicity Pl Unsworth Heights
2.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화요일(1'2일). 저녁 7:30. 교회>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정회자 권사님께 하시면 함께 기도드립니다
3. 추수감사주일(예고): 다음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믿음농사, 자식농사, 가정농사..... 그리고 보면 농사아닌 것이 없습니다.
4. "휴무교인"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합니다(안내문 참고)
5. 정기월례회의: 제1,2남선교회 월례회. 예배후 각각 갖습니다
6. 유아세례(예고): 성탄절에 유아세례를 베풀습니다.  
\*대상: 3세이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함께 배우는 성경: 수요일예배에서 출애굽기를 강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 사용하지 않는 TV  
\*유아실에 예배용 TV를 설치하려합니다. 혹시 가정에 사용치 않으시는 TV가 있으면 기증바랍니다



<시 권>  
그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 ◀착한 시인들▶

어릴 적 노래를 어릴 적 마음으로  
- 김용국-

『어릴 적 노래를 어릴 적 마음으로 노래하는 동안에도 세월은 한 발, 한 발

어릴 적 노래로부터, 어릴 적 마음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동요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를 어느 프로그램에서 듣고선 혼자 10번은 더 불러 보았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시 사이트에서 내 마음을 읽어낸 시를 만났게 신기했습니다. 어른이 되서 부르는 동요, 탁류가 된 인생에 녹이되어 붙은 부끄러움 참회록이 됩니다.